

Aal izz well



Aal izz well은
'All is well'의 인도식 발음입니다.
긍정적으로 인도 생활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RatonAtti 10th
Mumbai, India

Contents

1. 11월 일정

2. 11월 활동 보고

- Shift to Boys Home

- Trip to Aurangabad

- Nilshi Camp

- Midterm Evaluation

3. 우리들의 이야기

4. 11월의 특별한 이야기

5. Monthly Photo

1. 11월 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0/31	1	2
				← Aurangabad		
3	4	5	6	7	8	9
→	Diwali Fireworks ©JUHU Center		← Diwali Camp			
10	11	12	13	14	15	16
→	← Fresh Air Camp →		Visit Nilshi & Khandi Village	← Boys Home Camp →		
17	18	19	20	21	22	23
				Midterm Evaluation		Visit Film City
24	25	26	27	28	29	30
	Visit Dharabi	Start Skipping Rope Program	Join the Basketball Coaching	Start Kitchen Gardening	Visit Dilkhush Special School	Visit N.S.C.C.I Post Camp Meeting ©Bandra

2. 11월 활동 보고

(1) Shift to Boy's Home

10월말 우리는 YMCA International House에서 Boys Home으로 거처를 옮겼다. 두 달 간의 활동을 일정 부분 마무리 지으면서 서운하기도, 미처 계획만 세워놓고 정작 실행하지 못한 활동에 대한 아쉬움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새로이 만나게 될 Boys Home에서 함께 지내게 될 아이들에 대한 기대와 이곳에서 하게 될 활동들에 대한 설렘을 안고 옮기게 됐다.

이사를 마치자마자 많은 일들이 있어, 결국에 11월 중순을 넘어서 이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할 수 있었다. 11월 마지막 주부터는 아이들과 같이하는 줄넘기 수업, 텃밭 가꾸기 (Kitchen-gardening), 등굣길 함께하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장난감 도서관 만들기 역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2) Trip to Aurangabad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Juhu Street Shelter 아이들의 여행에 동행했다. 인도의 큰 축제 중 하나인 디왈리(Diwali) 기간을 맞아 뭄바이를 벗어나 아우랑가바드(Aurangabad), 엘로라(Ellora)와 아잔타(Ajanta) 지역을 둘러보는 시간이었다.

원래 이번 여행은 여러 후원자의 후원을 받아 Juhu Street Shelter 소속 아이들을 위해 기획된 행사로 우리 활동계획에는 없었다. 하지만 버스의 좌석이 남아 인도의 문화를 탐방하는 기회이자, 지난 9월에 잠시 방문한 Juhu Street Shelter의 아이들과 재회하여 관계를 맺어가는 기회로 삼아 16명의 아이들과 2명의 사회복지사, 2명의 후원자들과 함께 3박 4일간의 일정을 함께 했다.

이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한 엘로라와 아잔타 등 두 개의 석굴군을 관람할 수 있었다. 더불어 9월과 10월 우리가 주로 활동했던 Bombay YMCA Outreach Department를 맡고 있는 Jinson 덕분에 아우랑가바드에 위치한 비비 까 마끄바라(Bibi-kamqbara, Mini-Taj), 뽀판짜끼(Panchakki) 등도 둘러보았다.

한편 여행 다음날인 4일에는 Juhu Street Shelter의 아이들과 함께 게임하고, 저녁식사를 함께 먹었으며, 불꽃 놀이를 즐기는 등 디왈리 축제를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2) Trip to Aurangabad



(3) Nilshi Camp

Bombay YMCA에서는 여름과 겨울 캠프를 진행한다. 우리는 6일부터 16일까지 Nilshi Camp Lakeside에서 지내면서 3개의 캠프에 참여할 수 있었고, 캠프가 진행되지 않는 하루는 캠프장이 들어서면 주변 마을을 방문하여 도시와 다른 문화를 접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열흘 남짓의 시간 동안 뭄바이로부터 차로 6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서 때아닌 추위를 겪기도 했고, 도시에서는 접하지 못한 동물들과 만났기도 했고, 모기와의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때때로는 뭄바이의 숙소를 그리워하기도 했지만) 반면 캠프에 참여한 다양한 캠퍼와 봉사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첫 번째 캠프와 두 번째 캠프의 주제였던 자연(Nature), 특히 Farming과 관련해서는 Boys Home에서 Kitchen Gardening을 제안받기도 했다.



(3) Nilshi Camp

1. Diwali Camp (11/6 ~ 11/10)

첫 번째 캠프는 YMCA 멤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캠프로 100여명의 캠퍼와 YMCA에서 활동하는 10여명의 봉사자들과 함께 했다. Bombay YMCA에서 추구하는 가치나 아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주니어(Junior)와 시니어(Senior)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된 캠프에서 우리는 주로 주니어 그룹과 함께 일정을 소화했으며, 때때로는 시니어 그룹의 활동에 참가하기도 했다.

특히 주니어 그룹과 함께 한국 전통놀이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 캠프의 전체 테마인 'Disconnect to Reconnect'에 맞춰 '윷놀이'를 준비하여 진행했다. 무작정 쓰고 버리는 쓰레기, 온라인, 컴퓨터게임을 버리고 재활용한 쓰레기를 활용하여 직접 만든 게임 도구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보드게임이 되고자 준비한 놀이였다. 더욱이 팀으로 진행되는 놀이인 만큼 개인이 아닌 단체의 의견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재미있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고, 직접 만든 도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시 만들어 가져가는 친구들도 있었다. 더불어 우리는 딱지 세션을 추가로 요청 받아 진행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캠프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색적인 체험을 한 시간이었다.

(3) Nilshi Camp



(3) Nilshi Camp

2. Fresh Air Camp (11/10~11/12)

Fresh air camp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직전에 진행된 캠프가 리더십을 배양하거나 팀 빌딩 능력을 계발하는 부분, 창의력이나 다양한 활동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번 캠프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대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활동 프로그램 역시 캠프장에 마련된 시설을 위주로 구성되었다.

캠프 마지막 날에는 담당 코디네이터 세바스찬(Sebastian)의 제안으로 '딱지치기'를 진행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경쟁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 참가자들이 때때로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어 아쉬움이 남았다.

앞서 진행된 캠프 참가자들은 캐주얼 한 청바지나 티셔츠를 즐겨 입고 주로 영어를 사용했던 반면 이번 캠프 참가자들은 (특히 여자 참가자들이) 전통의상, 학교신문 또는 맨발에 더 익숙한 모습을 보였다. 또 대부분 힌디어를 사용해서 이전 캠프와 상반된 모습이 더욱 확연히 드러났던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눈으로 바로 보여지는 모습들은 실제적으로 인도 내 존재하는 빈부격차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기도 했다.

(3) Nilshi Camp



(3) Nilshi Camp

3. Boys Home Camp (11/13~11/16)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을 같이 동고동락하게 될 아이들이 온 캠프. 캠프장에 마련된 시설을 이용하는 동시에 'Seven Habits(7가지 습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단원들은 이전에 진행되었던 두 번의 캠프에서 거의 모든 활동 프로그램을 참여했기에 진행 스텝 못지않은 실력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정해진 세션이 있어서 우리가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캠프를 통해 아이들과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덕분에 Boys Home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기도 했다.



(3) Nilshi Camp



(4) Midterm Evaluation

11월 21일부터는 중간평가가 진행됐다. 이번 중간평가는 라온아띠 사무국 이아나 간사님과 구미 YMCA 최현욱 간사님께서 방문하셨다. 오래간만에 보는 간사님들이라 너무 반가웠고, 우리의 활동에 대해 많은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했다.

1H에서 9월부터 현재까지의 활동내용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코디네이터와 여러 Secretary 앞에서 발표하고 개인 소감을 얘기하며,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해 점검하고 앞으로 활동계획에 대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뒤이어 우리가 주로 활동했던 ORD를 비롯하여 Bombay YMCA의 여러 Branch를 방문하기도 했다. 밤에는 간사님들과 평소 활동이나 관계에 있어서 조언 받거나 의문 사항을 질문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특히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인도 음식도 접하고, 가끔 그리워 하던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최현욱 간사님 감사합니다^^)

또한 최현욱 간사님과는 아시아 최대 슬럼가인 다라비(Dharabi) 지역을 함께 방문하기도 했다. 주말에는 인도의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이 제작되는 Film City를 방문하기도 했으며, 숙소 근처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을 하는 등 문화 체험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4) Midterm Evaluation



3. 우리들의 이야기

KARAN (류병수 단원)

익숙하다 ; 늘 사귀어 사이가 가까웠다.

Boys Home에서의, 생활이 '드디어(?)' 시작됐다. 예정된 활동이었지만, 언제쯤 60명이 넘는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러나 때때로 의문이 들기도 했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생활도 얼마되지 않았다. 11월은 만남의 연속이었다. 어떤 만남은 지난 9월에 스치듯 만났던 Juhu친구들과의 만남이었고, 어떤 만남은 이전까지 한 두 번 마주친,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얹으로 매일 함께 생활한 Boys Home 친구들과의 만남이었다. 또다른 만남은 여태 만나지 않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듯 여겨지는 여러 Camper친구들과의 만남들이 있었다.

분명 처음에는 짧은 시간, 수십명의 친구들과 관계맺기에 대한 부담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수십명'이라는 단어를 배버리고, 매순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집중하기로 했다. 똑똑하게 관계를 맺는 것에 도전하지는 못했지만, 한층 이곳에 익숙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낯설지 않은 이목구비, 기억나는 얹서 만난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 한편으로는 벌써부터 그리워지는 아이들. 처음 인도에 왔을 때는 다들 생김새가 비슷한데다 이름까지 어렸더라며, 험난한 생활을 예상했었다. 그러나 캠프가 반복될수록 그런 생각 대신, 오랜 기간 마주쳐왔던 사람들을 같이 느껴진다. 또 한 번은 비록 당일치기(?)에 불과했지만 20명 남짓한 아이들과 함께 캠프파이어에서 선보일 공연-군무-을 연습하며 부대끼 수 있는 행운을 얻기도 했다.

어렵겠지만 좀 더 욕심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 역시 여기에 원래 있던 사람처럼 그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겨졌으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달 이사한,

Boys Home에서 무작정 열심히 뛰어놀 작정이다. Boys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와 맞게끔 참 활동적이라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멀쩡하다.

아주 가끔은 사실 가까워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Boys Home에서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면 싱긋 웃음짓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 영어를 잘못하니깐 몸으로 인사하는 것이다. 캠프까지 포함하면 2주 가까이 되어가는데, 이제 나를 보면 먼저 입을 가로로 최대한으로 벌리고 눈을 찡그리며 싱긋거린다. 그리고 보면 캠프에서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답해주던 아이가 있었다. 2월에 한국으로 가야 해서 다음 캠프에는 오지 못한다는 대답에도 불구하고 내년엔 있을 여름캠프, 겨울캠프에도 계속해서 올 것이냐고 나에게 물어보던, 마지막으로 떠날 때 끝까지 손 흔들어서준 아이였다. 문득문득 그 아이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몇 일 전에는 나의 생일이라고 이틀에 걸쳐 (날짜를 잘못 전해들은 Uncle 덕분에 생일 하루 전부터) 엄청난 축하를 받기도 했다. 'Happy Birthday'라는 짧은 문장이지만 친구들이 건네주는 말라 카드에 진심이 느껴진다. 때때로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 보면 nice, good 등의 단어로 '너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말한다. 특히 Boys Home 생활을 시작하면서 아침에 등교하는 고학년 친구들의 학교 가는 길을 혼자서 따라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떻게든 결말이 그렇게 맺어진다. 아무래도 전체가 아니라 일대일 혹은 일대다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나오는 말인 듯하다. 그럼에도 신경이 쓰이는 것이 바로 내가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괜히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들 때문에 스스로에게 부끄러워지고 친구들에게 미안해진다.

내가 가졌던 욕심과는 반대로 내가 뭘 한 것도 없고, 그냥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있었던 것뿐인 것 같은데 내가 분에 넘치는 것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요즘이다. 정말이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알고 있는 (나의 내면은 모른 상태의) 가식적인(?) 모습의 좋은 사람으로 진짜 변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더 신나게 알차게 놀아와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다가 혹시나 이틀이 생각하는 모습에 아주 조금은 닮아있지 않을까 싶다.

PRIYA (박소현) 단원

전공이 전공인지라 카메라 안에 어떤 특정한 순간들 또는 사람들을 담는 걸 좋아하는 편이다. 막연하게 또는 무한하게 흘러가는 듯한 시간들이 사진을 찍으면 그 순간만큼은 잠시 붙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사실 11월 달은 나의 사진 욕구를 충만하게 해주는 달이었다. 연이어 있었던 주후 아이들과의 아우랑가바드 여행과 닐시에서 열린 캠프들이 도심인 뭄바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도를 볼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원래 풍경에 그다지 감흥이 없는 편인데, 풍경과 분위기에 ‘압도’ 당한다는 표현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정도로 새로운 인도 풍경은 나에게 그만큼 크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담고 싶었다. 욕심이 났다. 그러나 이번 11월에는 사진을 많이 찍고 싶은 마음이 용솟음과 동시에 몇 개의 딜레마도 함께 찾아왔다.

기억은 때론 미화되기도 하고 무뎠지기도 한다. 내 눈에 담기는 석양, 사람들, 거대한 능선이 주는 경외감 같은 느낌 하나하나를 놓치고 싶지 않는데 그 생생함은 슬프게도 무뎠진다. 그래서 사진에 더 집착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가끔은 눈에 담기도 아까울 이 장면들을 사진으로 남기겠다고 카메라 렌즈 속을 들여다 보고 있을 때, 문득 내가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 순간을 남기고 싶어 렌즈 속으로 피사체를 바라보면 정작 난 내 눈으로는 온전히 그것을 담을 수 없게 돼버리기 때문이다. 나의 첫 번째 딜레마다.

개인적으로는, 사진을 찍는 그 행위 속엔 엄청난 두려움 또한 내재되어있다. 이는 대부분 ‘사람’을 찍을 때 해당된다. 사람을 카메라 속에 담을 땐, 사진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욕심과 찍히는 대상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가 항상 상충하곤 한다.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많이 담고 싶음과 동시에 혹시 내 욕심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화시키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이 항상 따라붙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을 피하고 싶은 심정에서 오히려 풍경이나 동물들을 일부러 더 많이 찍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비겁하게 숨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것이 나의 두 번째 딜레마다.

인도에서 사진을 찍으면 내가 이제껏 한번도 찍어보지 못한 풍경들과 모습들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마 그런 이유에서 이런 딜레마가 나에게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딜레마는 여기 인도에서 해결될 것 같진 않다. 아마 내가 영상공부를 하고 그에 관련된 일을 할 때까지는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어쩌면 2개였던 딜레마는 두 배, 세배로 늘어날 지도 모른다. 그냥 지금은 이런 두려움과 딜레마를 떳떳하게 마주하는 연습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런 담담한 마음으로 앞으로 계속 생활하게 될 Boys Home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주고 싶다.

여기 Boys home 아이들은 사진 찍히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가끔은 내 카메라 한대로 사진 찍히길 원하는 모든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어질 때가 있고, 그럴 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아직 미숙함을 많이 느낀다. 비록 아직은 미숙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찍어준 아이들의 사진엔 그 아이들에 대한 나의 애정이 묻어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찍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싶다.

ROHAN (서용덕 단위)

이달은 뭍바이 이외의 곳에서 있었던 날이 반을 차지하는 달이었다. 11월의 첫 날부터 세계 지리 시간에 교과서에서만 보던 데칸 고원을 직접 밟기도 하고, 캠프가 우연치 않게 3개가 연이어 있게 되어 Nilshi라는 자연 속에 열 하루 동안이나 머물 수 있었다. 더불어 뭍바이를 벗어나 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뭍바이로 돌아왔을 때는 새로운 숙소에서 새로운 활동들과 새로운 아이들과 새로운 스텝들과 호흡하게 되었다. 언제나 새로운 것의 연속인 이 생활이 재미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활동반경이 좁아지고, 새로운 숙소에서 생활한지 2주가 조금 넘어가는 시점에서 아주 약간은 이 곳에 대한 지루함을 느낄 때도 있다. 그래서 더욱 주말이 기다려지고, 주중에는 아이들과 이야기나 활동들을 많이 하려 한다.



캐프

이곳 YMCA Nilshi Camp Site는 뭍바이에서 차로 약 6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산 속에 위치한 캠프 사이트이다. 주위에는 댐이 건설되면서 만들어진 인공 호수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고, 우리나라 산에 있는 캠프 사이트와는 확연히 다른 주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 영화에서나 봤던 사람 키만한 선인장들이 가로수처럼 서 있고 연송이, 다람쥐, 뱀, 공작새 등 야생동물들도 심심치 않게 출몰하곤 하는 곳이다. (공작새는 깃털로만 그 존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변에 호숫가라 그런지 오후 5시~6시가 되면 모기떼의 습격이 시작됐다. 모 단연은 양 다리에만 100방이 넘는 모기에 물리기도 했고, 나 역시 태어나서 제일 많은 모기에 물렸던 것 같다.

우리 팀은 3개의 캠프를 연이어 이 곳에서 참여 할 수 있었다. 장장 열 하루 동안 캠프 사이트에 머물면서 200여 명의 아이들을 맞이하고 보냈다. 나는 유독 이 곳에서의 캠프가 좋았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캠프와는 다르게 나를 두근거리게 하는 많은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공 암벽 등반, 라펠링, 라이플 슈팅, 카야킹, 그리고 뛰니뛰니해도 호수에서 거의 매일같이 즐겼던 수영이다. 뭍바이에서 수영장을 바라보며 근침만 꿀꺽꿀꺽 삼켰던 나는 물 만난 고기 마냥 물 속에 들어가 퍼덕거렸다. 그러다 지치면 카야에 몸을 맡기고 누워서 햇볕에 몸을 말리기도 했다. 이 광활한 호수에서의 수영은 내 평생 길이길이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관계

지금까지 인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왔지만 특히나 이 달은 짧은 기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만들어 온 것 같다. 우리 팀원들은 내가 사람을 잘 만나고 쉽게 친해진다며 우스갯소리로 영업사원 같다고 하더라. 하지만 나라고 그게 쉬운 것 만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더욱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어색해했다.(팀원들은 믿지 않겠지만...) 그런데 웃기게도 인도에 와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만큼 어색하지는 않다. 그래서 더욱 많은 관계들을 만들었던 것 같다. 그 관계들 중에서도 캠프에서 만난 포레의 봉사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다. 그 중 몇몇은 캠프 전과 후로 계속 좋은 친구로 연락하며 지내고 있다. 그리고 캠프에서 만났던 청소년들 중 3명과도 온라인으로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다. 이런 관계들이 넓어져 가면 나도 모를 만족감을 채워 나가는 것은 아닌가 싶다. 아이들만 봐 오다가 비슷한 포레를 만나서 더욱 반갑거나 한 것 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나는 많은 좋은 사람들과 인도에서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반면에 다른 친구들과는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팀 내에서의 관계에 대해 무심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해 본다. 지금 이 관계는 맞는 것인지, 왜 팀원과의 관계에서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에는 왜 그냥 넘기고 마는지...



NEETA (조현정 단원)

11월은 나를 체력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게 한 달이다.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이유는 정신 없이 여기 저기를 돌아다녔기 때문이다. 10시간 이상 버스로 이동해야 했던 아우랑가바드로의 갑작스러운 여행, Nilish 캠프 사이트에서 11일 동안의 생활과 곧 이어 다가온 중간평가가 체력적인 부담이 되었다.

정서적으로 힘들었던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나 자신에 대한 고민 때문이다. 4박 5일 또는 2박 3일 이라는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졌다. 우리는 3개의 캠프에 참여하면서 그 때 그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묻고 이야기를 나눠야 했다. 관계 맺기를 매번 새로 시작하는 것과 수박 겉핥기 식의 관계 맺기가 부담이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캠프 사이트에 있으면서, 중간평가를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 동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 새로운 일을 진행하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대상에 대해 소홀하게 되었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익숙하고 당연할수록 더욱 신경 쓰고 그 존재를 인식해야 하는데 내가 그들을 잊어버리고 나를 찾지 않는 그들에게 투정을 부렸다. 그리고 때로는 어린애 같이 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그리워해야 하고 나를 더욱 찾아야 한다는 이기적으로 착각하기도 했다.

사실은 내가 먼저 연락을 해도 되는 것이고 내가 더 보고 싶다고 표현해도 되는 것인데 나는 이런 반응들을 기다리기만 했다. 그러면서 정작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들,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소홀하면서 인도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적응하고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내 모습이 뭔가 가식적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익숙하기에 소중한 사람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머리와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선뜻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 내가 싫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소통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귀찮고 부담으로 다가왔던 적은 처음인 것 같다. 심지어 보이즈홈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도 전혀 즐겁지 않고 힘들었다.

중간평가 이후, 에세이를 쓰는 지금은 다시 원래의 긍정적인 나로 돌아왔다. 아이들과 밥도 잘 먹고 차곡차곡 정도 쌓아가고 있다. 나는 아이들을 마주 할 때 항상 다짐 하는 것이 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과 열정적으로 소통하며 아이들에게 헌신하자는 것이다. 이제는 그 범주를 넓혀보려고 한다. 나에게 익숙한 사람들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열정적으로 소통하며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십·일·월의·키·워드 잔디밭의 모녀



“엄마, 지금 몇 시야?”

“몰라, 그냥 자.”

“그런데, 엄마. 나가야 하지 않아요?”

“그냥 자라니까.”

한 캠퍼가 Priya 단원에게 Neeta 단원을 가리키며 물었다.

“Priya, **Your mother?**”

라운아티를 통해 맺어진 ‘**모녀(母女)**’ 는

기나긴 두 번의 캠프를 끝낸 후,

어느 누구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캠프장 잔디밭에 지친 몸을 누였다.

그리고 해변가에 누워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했다.

인도에서 매일 밤 **추위**를 느낄 줄이야…….

이렇게 바닷가의 **해변**이 그리워 질 줄이야…….

2013년 11월 12일,
초겨울 대한민국과 다른 모습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인도에서.

1. 5개월 중에 3개월이 이미 지났다. 소감은?

시간이 정말 빠름을 절감하는 요즘이다. 한국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솔직히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기도 한다. 물론 물리적인 시간은 절반 이상 지나갔지만, 우리가 활동할 사이트가 중간에 한번 바뀌어서 그런지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은 별로 많이 안 든다. 여기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모두 초기단계여서 더 그런 것 같다. 오히려 이제 지내는 곳도 좀 안정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여기 BOYS HOME 아이들과도 꽤 친해져서 불안하거나 조급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 안정감이 자칫하면 권태로움으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이랑 몸만 아프지 않게 조심하면 남은 라온아띠 생활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마칠 수 있을 것 같다.

2. 11월 초에는 본인의 생일이었다. 어떻게 보냈나?

여기 YMCA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캠프와 일정이 겹쳐서, 캠프에서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내 생일은 캠프 첫날 이었는데, 처음 보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그것도 타지에서, 생일을 축하 받는 일은 무척 새롭고 고마운 경험이었다. 팀원들도 오글거리는 동영상 만들어주고 생일케이크도 준비해줬다. 예쁜 인도 스카프도 사줬다. 이런 이벤트를 받으면 내가 원래 좀 어쩔 줄 몰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속으로는 되게 기분 좋고 고마운데 겉으로는 그런 내색을 많이 안 낸다. 생일 챙겨준 팀원들 그리고 캠프 모든 사람들에게 무척 고마웠는데 그에 비해 내 리액션이 크지 않아서 혹시 실망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남에게 받는 마음의 무게만큼 나도 그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나누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과연 내가 그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다.

3-1. 11월은 뭘보다 다른 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다. 상업중심의 도시였던 뭘보다와는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했나?

인도하면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다. 자신의 신을 위해 묵묵히 기도하는 힌두, 이슬람 신도들, 히잡과 사리를 입은 여성들, 인도 사람들의 깊은 눈,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종교와 문화 등 여기서는 모든 것이 수용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뭔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리잡고 있는 인도에 대한 환상 같은 것들은 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나 또한 그랬다. 하지만 뭘비라는 도시를 가장 먼저 접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인도에 대한 환상과는 다른 부분들이 꽤 많았다. 그리고 그건 나로 하여금 ‘인도도 그냥 사람 사는 곳일 뿐이구나.’를 덕분에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환상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환상은 사람에게든, 공간에게든 존재하기 마련이다. 환상만을 가지고 사물이나 피사체를 바라본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조금의 환상은 세상을 아름답고 설레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1월은 뭘비와는 사뭇 대조적인, 어떻게 보면 내가 상상했던 인도에 훨씬 더 근접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기간이었다. 우선 도시에서 벗어나 내 짧은 인생 동안 몇 본 적 없는 정말 정말 아름다운 광경들, 그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촌락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기도 하고 아름다워서 넋을 놓고 봤던 것 같다. 결국 이번 11월은 내 머릿속에 인도에 대한 환상과 실재가 공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계기가 된 것 같다.

3-2. 팀의 사진을 담당하는 동시에, 풍경사진도 열심히 찍었다. 흑자는 이름에 '소'가 들어가서 '소' 찍기를 좋아하는 것이라 우스개 소리를 던지기도 했다. 인도는 사진 찍기 좋은 나라라는 얘기도 있다. 좋아하는, 혹은 담고 싶었지만 담지 못했던, 담고 싶은 샷이 있나?

질문에 관련된 내용은 개인 에세이를 보면 자세히 나와있다. ☺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사진 5

4. Boys Home 생활이 시작됐다. 9월과 10월과는 다른 생활이 예상된다. 아무래도 여자이다 보니 여자 단원으로 해서 힘든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을 것 같은 텐데. 어떤가?

우선 남자 형제나 주변에 친한 남동생 하나 없어서 그런지 처음엔 어떻게 애들을 대하면 좋아할까 고민이 되기도 했다. 애들이 한창 크는 남자아이들이다 보니 과격하기도 하고 장난기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도 지금은 점점 아이들과 편해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재미있는 누나, 운동 좋아하는 누나, 능글맞은 누나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 중이다. 가장 좋은 점은 내가 이성이라서 그런지 나를 보고 수줍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애들이 수줍수줍해하는 모습은 꽤나 귀엽다. 그리고 난 바히야(형) 보다는 디디(누나)의 어감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5-1. '과당소현'이라는 별칭에 부합하듯, 넘어져서 다리에 멍이 들기도 했다. 한때에는 수많은 모기 떼의 습격을 당해 양쪽다리 도합 100개 이상의 자국을 남기기도 했다. 영광의 상처 지금은 괜찮나?

캠핑기간은 트래킹 하다가 내 무릎이 찢어지고, 수영하다가 바지가 찢어진 다사다난한 날들의 연속 이었던 것 같다. 무릎의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고, 한때 레오파드 같았던 모기 물린 내 다리는 이제 좀 진정이 되었다. 캠핑을 다녀온 지금 가장 수고해준 내 다리에 감사의 인사 전하고 싶다. 흐흠

5-2. 컨디션 난조가 심한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내가 이렇게 체력이 약했나 싶을 정도로 인도에서 계속 골골대는 건 사실이다. 계속되는 잔병치레로 이제는 조원들과 우리를 돌봐주시는 코디네이터와 STAFF들에게 너무 미안할 지경이다. 왜 아픈 걸까. 나도 잘 모르겠다. 또록

6-1. 팀의 막내다. 그럼에도 팀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 듯하다. 본인의 생각은?

내가 맡은 일들이 가시적인 것들이 많아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팀원들 또한 내가 할 수 없거나 많이 부족한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내가 맡은 일들이 때론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건 분명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6-2. 팀원과의 관계에 대해 본인의 시각에서 평하자면?

인도로 떠나기 전, 우리 팀원들간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깊이 고민한 탓일까. 생각했던 것 만큼 나쁘진 않다. 우리 팀원들이어서 더 좋고 고마울 때가 오히려 많다. 물론 우리 팀원들 사이의 관계에도 분명 한계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나부터도 그렇고, 우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계선 안으로 서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중간평가 이후,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지금부터가 고비가 아닐까 싶다. 좀 더 솔직해지고 좀 더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연습이 의식적으로라도 필요할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나부터도 어려운 건 사실 어쩔 수가 없다. 그냥 즐겁게 지내고 싶다. 우선 서로를 보고 얘기하는 게 즐거워야 관계 증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7.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냥 남은 2개월 즐겁고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빠

밤



#Special. 닐시 마을이 살아가는 법



'Nilshi Camp Lakeside' 뭄바이(Mumbai)로부터 150km 떨어진 곳에 자리잡은 Bombay YMCA의 캠프장이다. 2003년 만들어진 캠프장은 닐시 마을(Nilshi Village)에 위치해있다. 그렇다 보니 닐시 마을과 YMCA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Lakeside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 이곳 캠프장은 호수를 끼고 자연과 어우러져 상당히 크게 조성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수영과 카약(kayaking)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호수는 사실 자연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 댐이 건설되면서 만들어진 인공호수다. (현재 댐은 인도 대기업 TATA 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큰 시장을 중심으로 가까운 거리에 모여 있었던 여러 마을은 80ft 아래 수몰되면서 흩어졌다. 잦은 왕래로 교류가 많았던 촌락은 닐시 마을과 같이 작은 규모의 마을로 흩어졌다.

캠프장 주변에 위치한 여러 이웃 마을이 가운데, 닐시 마을은 250여명이 살아가는 작은 마을. 아래 마을인 칸디 마을(Khandi Village)은 600여명이 거주한다. 40가구가 모여 사는 소규모의 닐시 마을이지만 마을 가운데에는 작은 학교도 있다. (상점까지 있는 보다 큰 칸디 마을에는 초등학교 이외에 중·고등학교도 있어서 주변 마을 학생들이 칸디 마을의 학교로 통학한다.) 마을 주민을 위해 학교 부지는 YMCA가, 건설은 TATA그룹이 지원했다. 마을 학교는 발와디(Balwadi, playschool)와 1~4학년 까지 저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한 칸은 마을 행사 때 사용되는 식기들을 모아두는 곳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학교 맞은 편에는 한 사원이 있는데, 이 역시에 캠프장이 들어설 때 YMCA가 힘을 보내 지은 것이다. 사원 옆에는 YMCA에서 의류 수선 직업 훈련 교육(Tailoring Vocational Training Centre)을 진행하던 건물도 있다. 현재 닐시 마을의 VTC는 칸디 마을에 위치한 건물로 옮겨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닐시 마을의 사원



좌측은 닐시 마을, 우측은 칸디 마을의 VTC 건물.
옷 수선, 제작, 디자인 그리고 컴퓨터 등을 알려준다.

#Special. 날시 마을이 살아가는 법



좌측부터 날시 마을의 학교 정문, 건물, 교실 내부, 어린이 전용 화장실.

농촌 지역은 거대한 빈곤의 저수지다. 정부 기구인 인도개발위원회는 빈곤 인구의 비중을 27.5%(약 3억 3,000만 명, 2004년~2005년)로 추정했다. 2010년 유엔개발계획(UNDP)은 이보다 훨씬 많은 55%(약 6억 5,000만 명)를 빈곤층으로 파악하고 있다. 어쨌든 약 3억 명에서 6억 명까지 어마어마한 인구가 빈곤층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 빈곤 인구의 4분의 3이 농촌 지역 거주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유엔개발계획이 조사한 것을 보면 지정 부족민(ST)의 복합 빈곤층 비중은 무려 81.4%였다. 그 다음이 흔히 불가촉천민으로 통칭되는 지정카스트 65.8%였다. 즉, 농촌에 거주하는 지정부족민과 불가촉천민은 예나 지금이나 경제적으로 인도의 최하층을 형성하고 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버거운 농촌 지역의 빈곤층에게 인도의 고도성장은 남의 나라 얘기나 마찬가지다. 도시에서는 신흥 중산층이 성장해 고급 아파트가 날개 돋친 듯 분양되고 명품 백화점이 속속 들어서고 도로는 자가용으로 붐빈다. 그러나 이 모든 성장의 결과물은 농촌 빈곤층에게는 꿈처럼 아스라한 신기루일 뿐이다.

- <인도, 꿩다> (이재강, 지식의숲, 2011)

이같은 긴밀한 관계는 YMCA가 캠프장을 조성하고 길목을 만드는 과정 등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었다. 또한 지금도 날시 마을의 한 가구당 1명 정도는 캠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는 마을의 경제적 성장을 돕고 있다. (캠프장 조성 당시 부지를 매입하면서 YMCA측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다.) 실제로 YMCA에서 오래 일한 주민일 수록 좀 더 좋은 가옥에서 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VTC 역시 경제적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서너 벌의 옷을 수선하면 캠프장에서 받은 일당과 비슷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조흔 풍습이 아직 남아 있어 수강 인원 부족으로 개설하지 못할 때도 있고, 아직까지는 가족들의 옷을 수선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재봉틀을 판매가격의 10%로 대여하는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렇게 YMCA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며, 한때 수몰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지역을 관할하는 정당에 의해 발전이 저해되고 있던 마을 주민의 경제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날시 마을에는 마을 청년을 중심으로 꾸려진 마을 크리켓 팀 Nilashi Warriors가 있다. 캠프장에서나 마을에서나 크리켓팀 단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자주 볼 수 있었다. Nilashi Warriors는 아마추어 크리켓 경기에 참여할 만큼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캠프장의 업무용 차량, 캠프장을 오가는 관광 버스 등은 동일한 방향으로 향하는 마을 사람들을 태우는 교통수단이 되기도 한다.



#Special. 날시 마을이 살아가는 법

날시와 칸디 마을의 풍경은 이미 익숙해진 도시와는 상반되었지만, 그리 오래되지 않은 우리의 옛 모습과도 닮아 있는 듯 했다.

▲ 주거 : 쌀 농사로 수입을 창출하는 이곳 마을들의 생활은 주거 형태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마을은 5~8명의 구성원이 모여, 대가족 형태로 한 집에 살고 있다. 우기에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비는 긴 지붕과 작은 창문을 가진 가옥의 형태로 만들었다. 또한 소젖을 짜서 팔기도 하고, 싸기를 팔 수도 있는 소는 중요한 재산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그래서 소를 외양간이 아닌 집안에서 키운다. 이런 주거 형태들은 마치 한국의 영동 지방 가옥 구조를 보는 듯하다.

▲ 수도 :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 공급 시설이 있다. 하루 2차례 물을 공급하지만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공급되지 않았다. 대신 마을 아낙들이 우물에서 물을 퍼 올리거나, 펌프질을 하여 물을 길어 올려 집으로 나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금은 펌프질이 그리 어렵지 않지만, 얼마 후 가뭄이 시작되면 펌프질이 힘겨워진단다. 이렇게 마련한 물은 약을 타서 깨끗하게 만든 후에 사용한다.

▲ 소똥 :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던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이곳의 화장실. 학교에 아동용 화장실이 있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따로 마련된 화장실은 찾지 못했다. 대신 쇠똥과 인분을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화로는 사용하는 부엌이 많았는데, 소똥은 불을 지피거나 집 외벽을 만들 때 사용되고 있었다.

▲ 품앗이 : 농번기가 되면 한국의 품앗이와 같이 서로의 논을 돌아가며 작업을 한다. 이때가 되면 타지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곳으로 와 일손을 돕는다고 했다. 한편 마을의 운영은 선출된 마을의 대표인 사르판치(sarpanch, सरपंच), 우리 식으로 보자면 이장을 통해 해결한다. 몇 명의 사르판치들이 모여 의결기구인 판자야티 라지(panchayati raj)를 구성하고, 촌락 단위의 (때로는 도시로 나가) 중대사를 논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우리와 비슷해서 안타까웠던 것은 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청년일수록 도시를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을로 돌아와 마을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대신 마을을 떠나는 청년들, 지구 어디에서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았다. 끊임없이 도시로 향하게 하는 그 무엇은 알 것 같으면서도 쉽게 정의할 수 없는 것으로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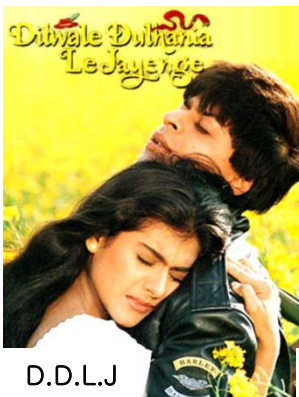


#4. 뭄바이의 또 다른 이름, 볼리우드(Bollywood)

인도의 거리를 지나치다 보면, 심지어 우리가 슬럼가라 생각하는 곳에도, 집집마다 TV수신을 위한 안테나가 지붕에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처음 목격한 광경은 쉽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과거 우리나라가 그랬듯, 미디어가 현실을 잊게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점도 떠올릴 수 있었다. 특히 우리가 화려한 춤과 노래로 대변되는 인도 영화를 통해 보고 상상했던 이미지가 결코 인도 전체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

그 동안 숙소에 있는 TV를 통해 인도의 미디어를 접할 기회도 있었다. 특히 인도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는 매 장면이 과장되어 표현한다. 배우들의 표정은 항상 매 회가 끝나는 장면과 흡사하여 때로는 시트콤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대사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 전개는 어느 나라나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듯하여 내용을 유추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무엇보다 호기심을 일으켰던 것은 미국의 할리우드(Hollywood)에 빗대어 볼리우드(Bollywood)로 불리는 인도 영화였다. 인도TV에서도, 거리에서도 영화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뭄바이는 인도 영화산업의 중심지라 더욱 그랬던 것 같다. 9월의 마지막 일요일, 우리는 처음으로 인도 영화관에 발을 디뎠다. 어떤 영화가 언제, 어떻게 상영되는지도 모른 상태로 숙소 근처에 있는 극장으로 무작정 갔다. 그리하여 보게 된 영화는 ‘딜왈레 둘하니아 레 자양게(Dilwale Dulhania Le Jayenge, 용감한 자가 신부를 데려가리).’ 줄여서 DDLJ로 통하는 영화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이 영화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900주가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상영되고 있는 작품으로, 이미 기네스북에도 그 기록이 남겨져 있다 한다. 뭄바이가 속해있는 마하라슈트라 주에서도 우리가 방문한 영화관 Maratha Mandir에서만 상영한다고 하니, 대단한 기록의 현장에 들어갔던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인도 영화산업이 올해로 100주년이라는 점이다. 한 해 1,000여 편의 영화가 만들어진다고 하니 영화시장 규모가 상당하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인도 내에서도 수십 개의 언어가 사용되다 보니 지역별로 더빙을 새롭게 하거나 지역언어에 맞는 자막을 내보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화관 매표소에는 해당 영화가 어떤 언어로 상영되고 있는지 표시한다.



D.D.L.J



멀티플렉스 영화관



영화 티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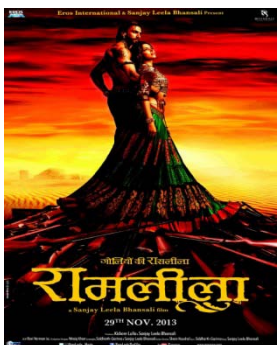
거리의 영화 광고 포스터

#4. 뭄바이의 또 다른 이름, 볼리우드(Bollywood)

인도의 영화관 역시 천차만별이다. 우리가 한 개의 영화관만 갔었더라면 이 또한 몰랐을 것이다. Andheri 지역으로 와서도 두 편의 영화를 관람했다. 하나는 히어로 물인 '크리쉬3(Krsishi3)', 또 하나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모티브로 한 '람릴라(Goliyon Ki Raasleela Ram-Leela)'다. 특히 크리쉬는 아이들과 친해질 때 유용한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다. 항공기 결함으로 착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영웅 크리쉬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안전한 착륙을 유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Andheri 근처에 공항이 있다 보니 비행기가 지나갈 때면 너도나도 '저기 크리쉬가 있다'며 아우성이다. DDRJ를 관람한 곳이 2층까지 있는 대형극장이었다면, 나머지 영화를 관람한 곳은 인도 전역에 체인 형태로 운영되는 멀티플렉스 영화관(PVR). 혹자는 한국의 영화관보다 더욱 좋다는 평을 내 놓기도 했다. 영화를 보는 풍경 역시 색다르다. 20년 가까이 된 영화임에 DDLJ에서는 여주인공 까졸(Kajol)이 나올 때쯤이면 휘파람은 물론 야유, 갈채가 쏟아졌다. 또 다른 영화에서는 광고에서 주로 사용된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나름대로 영화를 즐기는 방법일 것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우리가 보았던 인도의 거리나 기차역이 비현실적으로 깨끗하게 나오거나 대다수가 아닌 중산층 이상이 되어야 누릴 수 있는 삶을 화려하게 포장한 듯한 느낌에 다소 불편하기도 했다. 또한 일관되게 남성은 근육질의 마초적인 이미지로, 여성은 육감적인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기도 했다. 그러나 때때로는 까란 조하르(Karan Johar)의 감독의 '내 이름은 칸(My name is Khan)'과 같이 종교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부패한 사회나 정치 이슈를 과감하게 드러내 어찌 보면 우리나라보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인도 영화가 항상 행복한 결말은 아니다. 힌디어를 가르쳐주었던 SABA의 추천으로 보게 된 음악 영화인 '아쉬키2(Aashique2)'는 비극이다. 그럼에도 여러모로 꽤 인기 있었던 최근 영화다.

P.S 우리는 12월 20일에 개봉하는 아미르 칸(Amir Khan) 주연의 '뚝3(Dhoom:3)'의 개봉을 손꼽아 기다린다. 인도 내에서는 엘리트(elite) 이미지의 아미르 칸보다 샤룩 칸(Shahrukh Khan)이 더 인기가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뚝3의 개봉 한 달 전부터 관련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영화에 대한 관심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람릴라의 포스터

남자주인공(Ram)과 여자주인공(Leela)의 사랑이야기를 담은 인도판 로미오와 줄리엣. 프리얀카 초프라를 내세운 광고와 달리 그녀는 특별출연에 불과해 우리를 실망하게 한 영화인 반면 홀리, (Holi) 다 세라(Dassara) 등의 인도 축제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한 마을이장 사르판치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화다.



Film City 내 영화가 촬영되고 있는 한 마을
쿤단 샤후(Kundan Shah) 감독의 P SE PM TAK 마지막 촬영 현장. 인도에서는 유명한 감독이라고 한다.



MONTHLY PHOTO









